

尙州 洛上里의 馬堂祭

金 基 卓

〈목 차〉

- | | |
|----------------|-----------|
| I. 序 論 | 2. 神體의 形態 |
| II. 馬祭의 史的 背景 | 3. 馬堂의 祭期 |
| III. 幽谷驛道와 洛上驛 | 4. 馬堂의 祭儀 |
| IV. 洛上里의 馬堂祭 | 5. 緣起說話 |
| 1. 神堂의 形態 | V. 結 論 |

I. 서 론

우리나라는 향토 神祀-부락집단 민간신앙-는 대체로 「堂」신앙이다. 이 「堂」신앙은 향토의 자연적 조건, 역사적 전설, 생업적 기능 등에 따라 그 명칭과 신앙의 대상이 표면상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연원을 고찰하면 上代의 天神, 山神, 洞神 숭배의 순서로 발달된 신앙심리의 통합으로서 부락집단 수호신 신앙으로 귀결되면서 부락 공동의 신앙으로 발전되어 神堂이 이루어 졌는 데 특질이 있다.

이 「神堂」은 예로부터 명칭상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형태가 累石과 神樹가 복합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기본형태에서 나아가 「당집」도 있고, 「장승」이 있고, 「입석」과 「암석」 그리고 「숫대」가 복합된 것이 있다. 이러한 「堂」신앙의 역사적인 始原的 암시는 단군신화의 기록으로 삼국유사에는 累石壇이, 제왕운기는 神樹의 상징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단군신화는 부락 공동제의를 상징한 원초적 신화로 볼

수 있다.

필자가 여기 소개하고자 하는 尙州 洛上里의 馬堂祭도, 이러한 부락 수호신 신앙의 한 갈래로서 그 일반적 형태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로 전해 오는 한 驛村의 부락제 신앙이다. 여기서는 「馬祭」라는 上代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낙상리·역촌의 배경이 되는 상주도와 유곡도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馬堂信仰形態의 개요와 그 특이점을 지적하여 상주 낙상리의 馬堂祭 考察을 試하고자 한다.

Ⅱ. 馬祭의 史的 背景

예로부터 말(馬)은 十二支의 일곱번째 동물로서 활동적이며 도약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에 따라 우리 인간생활에서 말은 교통·군사·농경 등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상대에서부터 인간의 생활사 속에서 말이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민간신앙 가운데 부락제에서나 개인치성에 마제(馬祭)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엮은 「부락제」¹⁾의 洞祭名에 보면 충북 괴산군이 馬堂神과 경기도 광주군에 牽馬之神이 소개되고 있으나 제의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진성기, 현용준님이 조사한 제주도의 “말(馬) 부림제”와 牛馬증식을 위한 백중제 당굿이 있었다. 그리고 내륙에서도 김승찬 교수에 의하여 “부산 하정리의 마당제”²⁾가 논문으로 소개되었다. 부산 하정리의 마당제의는 원래 부락제의 당제는 하나인데, 이 마을에는 “마당장군제”라 하여 제차가 하나 더 있음을 볼 수 있었다. 荷亭里 마을에서는 당제를 일반적으로 ‘산지(山祭)’라 부르고, 당제 베푸는 것을 ‘제만 모신다’ 또는 ‘동네어른 모신다’라고 한다.

1) 조선총독부 : 「부락제」, 1938, P. 280

2) 金承燾 : 「民俗學散藁」, “부산하정리의 마당제” 1980, 부산 제일문화사, pp.23-43

당집은 이 마을에 두 개가 있는데 主山堂과 馬堂이 있다. 그리고 이 두 당집 외에 마을에는 두 곳의 신역이 있으니, 하나는 마을과 主山堂 사이, 즉 주산당에서 마을쪽으로 70m 가량 내려오는 지점에 木新堂이라는 신역이 있어 20여년 된 소나무를 神體로 하고서 당제를 올리며, 또 하나는 마을 앞으로 뻗은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한 거릿대신역이 있어 이 마을 당제의 제차는 主山堂祭→木神堂祭→馬堂將軍祭→거리堂山祭의 순서로서 秘儀로 행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동제의에 앞서 18, 19C의 민속을 소개한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午日을 속칭 말날이라 한다. 팔로 시루떡을 만들어 廐中에 차리고 신에게 기도하여 말의 건강을 祈祝한다. 丙午日은 이용하지 않는데 그것은 丙과 病은 소리가 같으므로 馬病을 꺼려서이다. 그러므로 戊午日이 가장 좋다.」(동국세시기 10월 午日條)

라고 하여 예로부터 말(馬)에 대한 개인제의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 禱神 행사는 개인의 집에서 사육하는 말의 건강을 위해 馬病을 물리치는 개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제의와 부락 공동제의가 근세에는 공존해 왔으나, 上古시대에는 馬祭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동부여의 金蛙 탄생설화이나 斯盧의 朴赫居世 탄생설화 등에 말이 관여되어 있었고, 또 文武王이 熊津城에 가서 扶餘王을 만나 제단을 만들고 白馬를 희생하여 맹서했다는 등 말이 희생물로써 사용된 기록은 있으나 馬祭에 대하여 아무런 기사가 없었다. 이 외에도 경주 155호 고분 천마총에서 나온 障泥天馬圖와 분묘에서 나온 말모양을 한 토기와 기사형 토기가 있음을 볼 때, 상대의 부족국가 건설시기부터 말에 대한 숭배사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형태의 제사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삼국통일한 신라때 오면 해공왕과 선덕왕대에 이르러 諸祭典이 중국 식 명칭으로 바뀌지면서 중국적 제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중국적 양식으로 변경되면서 馬祖祭·先牧祭·馬社祭·馬步祭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세의 공동제의로써 馬堂祭가 정월 14일에 행해지며, 개인제의로서 馬夫祭가 10월 이후 농가에서 고사와 함께 거행됨을 볼 때, 마제는 국가에서 제사할 때는 중국양식으로, 민간의 개인제나 부락제에서 거행할 때는 우리 나라 양식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각각 병존해 내려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³⁾

고려시대의 마제도 신라시대를 이어 이중적 구조로서 각각 병존해 있었을 것이나, 민간의 마제는 전연 알 수 없고, 다만 중국 양식에 의거하여 거행된 국가적 마제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毅宗대부터 馬祖·先牧·馬社·馬步의 마제는 小祀로서 상설단을 두고 仲春·仲夏·仲秋·仲冬의吉日을 택해 小牢之饌로 배설하여 유교식으로 제의가 베풀어 졌다.⁴⁾

李朝時代에 와서는 먼저 司僕寺가 輿馬와 廐牧의 사무를 관장하면서 마제를 태종 13년부터 도맡아 거행하였고, 마제를 위한 常設壇도 東郊에 마련하였다.

馬祭日도 太宗 11년 10월부터는 古制에 의거하여 馬祖祭는 春分 뒤 初剛日⁵⁾에, 先牧祭는 夏至 뒤 剛日에, 馬社祭는 秋分 뒤 剛日에 馬步祭는 冬至 뒤 剛日에 行祭토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馬祭에서도 무당의 요소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예로부터 소 보다 말은 식용보다 승용이나 군용에 적합한 동물이므로 사육하였고, 또 馬病이 창궐할 때는, 교통상이나 국방상 필수불가결한

3) 金承燦, 위의 책, p.32

4) 『高麗史』: 禮志 5(小祀條)

5) 剛日은 十干支中 甲, 丙, 戊, 庚, 壬日이다.

동물이기에 馬神祭가 거행된 것이다. 연산군 때 편찬된 『사용향약보』에 나오는 “軍馬大王”은 馬神을 지칭한 것일 것이다. 이 마신을 위한 제향이나 다른 신격을 제향할 때 그 신격이 타는 말을 무격이 사역하기 위해 ‘軍馬大王’의 무가가 필요했을 것이니 馬神祭에 있어서도 무속이 습합되었으리라는 가정도 할 수 있다.

이조실록을 통한 조선조 중·후기 시대에 거행된 마제 기록의 단편을 볼 수 있었다.

- 단종 원년 5월에 馬祖·先牧·馬社·馬步를 위해 四壇을 배설하고 제사하다. 『端宗實錄 6 : 31』
- 현종 10년 2월에 馬祖祭를 箭串牧場에서 행하다. 『顯宗改修實錄 20 : 42』
- 영조 8년 2월에 內厩馬가 병으로 斃死하는 것이 많아지자 箭串牧場에서 馬祖製를 지내다. 『英祖實錄 31 : 10』
- 영조 25년 9월에 牛疫이 창궐하자 箭串牧場 안에 築壇하고 제사를 지내 고서는 先牧神을 馬壇에 배설하다. 『英祖實錄 70 : 14』
- 정조 21년 7월에 箭串牧場에 馬病이 생겨 말이 많이 죽자 馬祖祭를 지내다. 『正祖實錄 47 : 1』

이상의 마제 기록을 보면, 영조 25년에 행한 先牧祭와 정조 21년에 행한 馬祖祭는 馬祖·先牧의 제일인 仲春(春分 뒤의 初剛日)·仲夏(夏至 뒤의 剛日)의 剛日과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馬病이나 牛疾이 발생하여 폐사가 많이 나타날 때는 꼭 지정된 제사날에 제사를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馬病이 계절에 따라 창궐하여 말이 죽는 피해가 늘면 그때 그때마다 국가 주관으로 제사를 지냈을 것이며, 또 민간에서도 토속적인 마제가 거행되었을 것이다.

조선조에 있어서 토속적 마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도 廣州

郡에 牢馬之神祭와 충북 槐山郡에 馬堂祭 및 부산 荷亭將軍製가 부락제의 한 제차로서 중국의 유식 제사양식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거행되었을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 “물부림제”처럼 무당에 의하여 무속제의로서 거행되는 마제도 있었고, 또 개인제로서는 『東國歲時記』에 기사된 것처럼 10월 午日에 말을 사육하는 가정에서 말의 건강을 위해 禱神 행사가 있었다.

김승찬 교수에 의하면 현재 민간신앙상 제당에 馬像을 봉안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세 갈래⁶⁾로 보고 있다. 첫째는 말에 대한 숭배관념에서 봉안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馬病을 없애기 위해 세우게 된 것이며, 그 셋째는 산신이나 서낭신이 타는 신성물로서 主神의 제의에 부수적으로 따르며 독립된 祭次없이 봉안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의 화상이 봉안된 신당은 볼 수 없었고, 문헌의 기록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다만, 설화나 산신의 현몽에 의하여 馬神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으며, 민속현상에 나타난 말의 상징성도 주로 설화에 의한 것이 주종이며, 이것이 현실에 반영되어 민간생활 습속에 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지금도 민속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幽谷驛道와 洛上驛

상주는 영남 북부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용주로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곡창지대이다. 역사적으로 신라시대에는 상주가 九州 가운데 하나로 州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고려 성종 때에는 十二州 中의 하나였고, 현종 때부터는 八牧中의 하나가 되어 조선조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통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관직도 사벌국 때의 국

6) 金承燦 : 위의 책, pp. 35-36

왕에서부터 군주, 절도사, 안무사, 목사등 높은 품계였고, 임명된 사람도 국정에 참여하는 중신들이 많았다. 또 한때는 목사가 관찰사를 겸하기도 하였으므로 상주는 경상도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큰 단위에 높은 관직의 중신들이 행정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는 정치·경제·문화·군사적인 면에서 영남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므로 고려시대에는 尙州道가 생겨 25驛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영남로(嶺南路)는 조선조 500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인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간선도로이고, 그 중 영남의 첫 역로가 유곡도(幽谷道)라 영남의 선비, 임란의 왜군, 왜의 물산이 모두 이 길을 이용하여 왔다.

이 유곡역도에는 문경현, 함창군, 상주목, 선산부, 군위군, 비안군, 예천군, 용궁군에 소속된 19개역이 있었다. 취락 발달과 함께 驛에는 驛院制와 驛站制가 있어 驛에는 관물수송 및 관리의 호송을 담당하고 站은 주로 군사통신을, 院은 일반 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는 조직이다.⁷⁾

幽谷은 영남의 첫 관문인 현재 문경군 점촌시 관내의 유곡동을 가리키는 옛 지명으로 조선조에 와서 중요 교통로로 인식되어 “유곡역도”라 하였다. 이 유곡역은 찰방이 관할하고 있는데, 한양에서 영남을 오가는 영남로가 동남쪽으로 뻗은 남부지방의 첫 관문이고, 소백산맥(문경새재)을 넘어서는 간선도로로서 유곡역은 察訪道로 승격되어 근세 한말까지 운영되었다. 조선초는 전국에 480개 역을 찰방 5명과 역승 39명이 맡아 운영하였는데, 유곡역도 역승이 聊城(문경현), 德通(함창현), 洛陽, 洛東, 洛原, 洛西(이상 상주목), 長林(상주화령), 靑里신역, 常平(상주 증모현), 功城신역(상주), 仇彌, 迎香, 安谷(이상 선산도호부), 上林(선산 해평현), 雙溪, 安溪(이상 예천 비안현), 水山(예천·다인현), 龍宮신역, 知保(예천), 召溪(군위·효령) 등 20개 역과 유곡 본역

7) 申厚湜 : 『幽谷驛道』 문경문화원, 1988, 12, pp.9-15

을 관장하였다. 이 유곡도는 안동도 3개 역, 상주도 18개 역이 유곡도로 구획 지어졌는데, 이것은 고려때의 상주도 13개 역과 경산부도 5개 역에 조선조 초기에 신설된 용궁, 청리, 공성신역이 포함된 것이다.⁸⁾

이미 후삼국 때, 문경~유곡~상주에 이르는 도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통일하여 개경을 중심으로 역제와 교통로를 확립한 고려의 驛制에는 성종(981~997)때 이미 전국을 22驛道 525驛으로 완성되었다. 고려사 병지 참여조에 보면 尙州道는 25驛으로 편성되었다가, 조선조에 와서는 안동도 3개 역, 상주도 18개 역이 幽谷道(1420년 경)으로 구획 지어졌다. 그 중 상주에 속한 낙양, 낙서, 낙동, 장림(화령현), 낙원, 낙평(청리신역)등 6개역이 있는데, 이중 마당제가 행해진 洛原(洛上里)역은 남쪽으로 선산, 구미, 동쪽으로 다인, 수산, 서쪽으로 낙양, 북쪽으로 함창 덕통, 문경 유곡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유곡역도 내에서도, 낙동~상주(낙원)~문경은 1등 도로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조선조에 9개 간선도로 가운데 2개 간선도로가 유곡도를 지나간다. 즉 한양 남대문을 나와서 한강을 건너 과천, 용인, 충주를 거쳐 문경, 유곡, 상주에 와서는 대구, 밀양, 동래, 부산진에 이르는 길과, 또 하나는 고성 통제사영(統制使營)를 가는 길로, 상주에와서는 낙동, 성주를 거쳐 삼천포 통영으로 가는 길이 조선조의 大路로서 상주역 중에서도 낙원(현 낙상리)역이 남쪽 갈림길의 요충지로서 驛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상주에 속하는 6개 역촌 중 낙서리에 있는 역마을과 아래뜰이 영남 서울간의 중요 통로로서 역과 馬堂이 있었으나 지금은 농경지로 변하였고, 낙상리에 있는 낙원역에는 碑閣亭과 말을 관리하는 집은 없어지고, 다만 마당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다. 낙원(낙상리)은 羅院(나원리)이라고도 하며, “삼주골”, “마당골”, “성골”이라고 부른다. 유곡도 찰방

8) 申厚湜 : 위의 책, pp. 37-42

에 속한 낙원역에는 驛과 院이 있었다.

영남로의 유곡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영남지방의 목구멍과 같이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찰방을 두고 18개 역을 관할함으로써 영남지방의 큰 교통로 요충지로 발전하여 근세 한말의 경우 유곡역도 19개 역 중 13개 역에 2975명의 역리와 800명의 노비가 있었고 200여 필의 역마을을 두었다. 역토에서 1676냥의 賭錢을 받기까지 하였다.

유곡도의 기능은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역원제와 함께 조선조 전기의 봉수제, 후기의 과발제가 중앙집권하에 활용되었지만 민간통신은 배제되고 행정 군사통신 위주라 교통로 기능은 미약하였다.

경제적 기능에서는 公納物을 중앙으로 수송하는 관물수송이 주로 길마에 의존했으며 영남의 세수미는 육운과 해운을 반복하다가 북부지역은 유곡도를 활용하여 새재를 넘고 충주 가흥창에 수납하였다.

관물 수송이 춘추 2회로 한정되고 상품화 할 수 없어 상업로 기능이 적었으나 邑治 屬縣治 역촌에 시장이 서고부터 상주상, 안계장이 경상도의 주요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중 상주장은 1909년대부터 경상도의 주요시장이었으나, 그 이전에는 낙원의역로와 역 부근에 이루어진 낙원(낙상리)장이 역사적으로 상주장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한다. 보부상이 상업로를 이용하여 민간통신을 담당했고, 점촌 등 새로운 상업취락을 형성시켰으며, 상주의 낙동 나루에는 상업기능의 객주가도 이루어졌다.

역로의 문화적 기능으로서는 관인과 외국사신 및 여행자 등 인원과 물자의 이동에 따라 문화교류가 널리 이루어 졌음이 방언과 생활양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역과 관련한 역로변의 선정비와 시, 기문, 전설, 민요, 민간신앙도 찾아 볼 수 있다.

찰방, 관찰사의 선정비 외에 역리와 이방의 不忘碑와 이규보, 김군수, 홍언충, 김극기, 신유, 이퇴계, 허전의 시와 홍귀달, 권상일, 권근의 유곡역사, 관수루, 견탄원 중수기를 통하여 당시 문물제도를 알 수 있었

다.

요성역리를 해쳐 나라에 죄를 지은 문경 새재 산신령, 낙동 나루에서 만년을 소탈하게 지낸 낙동대감,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생각됐던 낙동역리의 아들과 용바위, 연향역리를 구하고 죽은 義狗의 무덤 등의 전설은 역의 중요성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역로에 있던 亭子木 積石은 서낭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마와 인간의 무병을 비는 마당굿도 민속으로 남아 있다.

끝으로 유곡역과 영남로의 중요성을 말하는 文匡公의 洪貴達의 幽谷驛舍의 중수기 일부를 옮겨 본다.

「영의 남쪽 60여주는 지역이 넓고 인구나 물산이 많아 그 수레와 말들이 모두 유곡의 길로 모여서야 서울로 갈 수 있고 서울서도 남으로 갈 사람은 이곳을 지나야 갈곳으로 갈라지게된다.

이 역은 사람의 목구멍과 같이 목구멍에 병이 나면 음식을 먹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듯 영남의 목구멍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후(禹候)가 유곡역관을 먼저 수리한 까닭이다.

유곡에 관사가 있기는 오래되어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나 내가 서울 왕래 한지 40여 년인데 처음 볼 때 낡은 건물이 이제까지 고쳐 짓지 않아 얼마나 기울었는지 알만하다.

큰 손님이 올 때마다 누추한 것을 닦하고 길손은 전부터 좁은 것을 걱정해 나도 한탄했더니 홍치2년(1489년 : 성종 20)에 禹雄공이 이 역로의 찰방으로 와서 파괴되고 쇠잔한 길을 걷는데는 빨리 걸을 수 있고 타는데는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정비하여 과발길이 완전하게 됐다.

역사가 퇴락하고 무너졌으니 사신을 엄숙하게 대하고 길손을 편하에 모실 수 없다. 우리 앞사람도 할 수 없었고 뒷사람에게 기대 할 수 없으며 유곡은 본 역이고 큰 손님이 이르고 남북내왕의 요충이니 우리가 다른 일에 우선하여 역사를 수리하고자 의논하였다.

재목은 가까운 산에서 구하고 역줄의 힘을 얻고 잘하는 목수를 골라 집을

옛터에 세우고 東西軒은 수리했다. 백년이나 허물어져 있던 것이 한 달 안에 힘들이지 않고 빨리 일신 되었다.

당시 내가 아버지 상으로 합창에 있었고 유곡을 지나며 새로 지은 동서헌에 잠깐 쉬었는데 옛날과 달리 대마루며 창에서 내다보니 마음과 눈이 탁트여 오래 거닐며 흐뭇했으나 우공의 마음쓰고 능숙한 일 처리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루는 공이 기문을 청하기에 이 郵亭이 있는 뒤부터 많은 찰방과 역승이 바뀌었는데도 새로 짓지 못하고 백성과 아전에게 해독이 되어 역이 쇠잔해 왔으니 모두 죄인이다.(이하생략)⁹⁾

위의 증수기문 내용을 볼 때, 영남로의 첫 관문인 유곡역도의 중요성과 함께 본고에 고찰 대상지역으로 삼는 낙상리도 驛村으로서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IV. 洛上里의 馬堂祭

1. 神堂의 형태

상주 낙상리도 다른 마을과 같이 부락민 전체가 올리는 동제를 지내지만 마당(馬堂)라고 불리는 神堂에서 이 마을 시조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마을의 馬堂이라는 신당은 마을의 뒤편인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져 도룡산(170m) 기슭 중턱에 자리잡고 남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주위는 신역같은 분위기를 주지 않고, 2·30년생의 소나무가 드문 드문 서있고, 잡목과 풀이 우거져 있다. 신당은 3칸 기와지붕으로 보통 당집보다 크며, 옛날에는 한 쪽 편에서 제기를 보관하였고, 신당 내에서 제주

9) 申厚澁 : 위의 책, pp. 115-116

가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지금은 동제도 지내지 않고, 빈 집만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는 이 신당외에도 두 곳의 신역이 있다. 하나는 마을 뒤쪽에 신당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아름답리 소나무(木神堂)와 공동우물이 있어 이것을 신체로 하고서 부락제를 올리며, 다른 하나는 마을 앞으로 가로지른 시냇가 제방에 큰 버드나무(마을 입구)가 거릿대 신역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베어 버리고 흔적만 남아 있다.

이 마을의 부락제의 제차는 거릿대 신역→우물이 있는 목신당→마당의 순서로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2. 神體의 형태

이 마을에는 앞에서 소개한 동리입구의 시냇가에 있었던 洞守木이라는 버드나무와 공동우물이 있는 수 백 년된 거목의 소나무 자체가 부락제의 신체로 모셔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룡산 중턱에 있는 馬堂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락 시조신 세분의 여성신 위패가 제일 중요한 神體라 할 수 있다. 세 분의 여성신위는 곧 坡平尹氏, 慶州崔氏, 忠州池氏로 三位堂壇神位를 모시고 있었는데, 특이한 것으로는 제사를 올리는 날 신당의 출입문 정면 문주에 말 꼬랑자 털을 걸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¹⁰⁾언제부터 세 분의 여성신위를 부락 시조신으로 모셔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당집 이름은 마당으로 부르고 있었다.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상주 낙상리 마을은 역사적으로 驛村이었기에 지금도 “낙상리”라는 명칭 외에도 “馬堂골”, “삼주골”, “샘골목”, “城內”, “洛院”(성안) “나원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上代에는 이미 驛馬(村) 마을의 부락제로 馬神堂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유지했으나, 후

10) 상주시 낙상동 전경수(80세) 노인의 이야기(1993. 10).

대에 오면서(약 200여 년 전부터 유래되었다) 세 분의 여성신위를 모시게 되자 馬神格은 主에서 副로 낮추어지고 마을 시조신을 위한 동신제로 그 역할이 바뀌지게 되었다고 본다.

3. 馬堂의 祭期

낙상리 마을 馬堂의 제사 시기는 매년 음력 정월 十二干支 가운데 첫 午日(말날)에 해당되는 날 자정부터 첫 닭이 울기 전에 馬堂祭가 행하여졌다. 그런데 낙상리 부락제는 馬堂祭와 洞神祭 두 종류의 제사가 한 곳(馬堂)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애초에는 馬堂祭를 지내 오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최근에는 馬堂에서 매년 음력 10월 초 하룻날 三位堂堉神位를 모시고 洞神祭를 전 부락민들이 지내 왔으나 지금은 아무 것도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로써 볼 때 上代부터 馬堂祭를 지내오다가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낙상리 부락을 부자마을로 변하게 한 기틀을 마련해 준 세 할머니의 신위를 모신 뒤부터 마당제는 점점 쇠퇴하여지고, 그 후 동신제를 같은 제당(馬堂)에서 모셔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馬堂의 祭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낙상리 마을에는 上代부터 驛村에서 지내오던 馬堂祭와 馬堂과 무관하게 마을 시조신을 위한 洞神祭가 같은 장소 馬堂에서 따로 행하여지고 있었다.

1) 正月 馬堂祭

낙상리 마을은 새해이 달력을 보고 정월 첫 午日(말날) 馬堂祭일을 약 보름 앞두고 마을 이장이 주관하여 제관 1명과 축관 1명 그리고 유

사 1명을 마을 주민 가운데서 선정하게 된다. 제관의 선정은 무엇보다 정결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 가운데 祭日의 日辰과 생기복덕이 합치되는 남자를 뽑아 제관을 삼는데, 제관을 이 마을에서는 제주라고 한다.

馬堂祭의 제주로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외출을 삼가고 부정을 피하는 금기의 생활에 들어 가는데 집안을 청소하고서는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서 부정을 막고, 외부 사람과의 접촉을 끊는다. 그리고 제사날이 가까워 오면 제물을 손수 준비한다. 준비하는 제물은 쇠고기, 해산물, 생오곡을 준비하는데 술·밥·떡은 하지 않으며, 옛날에는 쇠고기 대신 송아지를 제물로 사용했다고 한다.

제사일이 되면 아침 일찍 마을 입구 시냇가의 버드나무 주위와 공동우물이 있는 소나무(堂木), 마당 주위를 청소시키고, 이 날만은 외인의 물 길는 것을 금지시키며 동민들은 외출도 삼간다. 이 날 밤 자정이 되면 제주와 축관, 유사는 장만한 제물을 가지고, 마을 입구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가 있는 서낭木을 시작하여 공동우물이 있는 소나무洞守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룡산 중턱 馬堂에 도착하여 첫 닭이 울기 전에 제사를 드린다. 제사날 馬堂에는 尹氏, 崔氏, 池氏의 三神位를 모시고 지내는데, 당집의 정면 문주에 말꼬리를 걸어 놓는다고 하였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음복을 하고 마을총회로 이어져 모든 일을 끝내게 된다. 마을 古老들에 의하면 馬堂에 세 분 성씨의 신위를 모시는 데 대한 유래는 약 200여년 전에 부자집의 외로운 홀 할머니들이 후손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생전에 소유하던 모든 재산을 동네기금으로 회사하고 죽었다. 그 후 동민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부락민 전체의 성의로 제사를 지내주기 위해 동답을 마련하고는 이때부터 매년 동신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¹¹⁾고 한다.

11) 위와 같음.

2) 十月 洞神祭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十月 洞神祭에는 말(馬)과 무관하게 正月 馬堂祭에 모셨던 三神位만을 모시고 음력 十月 초하룻날 지내는데 제관을 비롯한 축관, 유사(유사)의 수는 마당제와 동일하다.

제관 선정과정과 금기사항 및 제사절차는 정월의 마당제와 동일하며, 다만 다른 점은 당집 문주에 말 꼬리 털을 걸지 않고 말(馬)과는 아무 관련 없이 오직 三神位 즉 坡平尹氏, 慶州崔氏, 忠州池氏 세 夫人을 위한 三位壇神位의 紙方을 붙이고 동제사를 올린다¹²⁾고 한다.

다음은 十月 洞神祭의 祝文이다.

「維歲次 ○○(支干) 十月 甲午 朔初一日 甲午幼學○○○(祭官) 敢昭告于
顯 貞夫人 坡平尹氏 淑夫人 慶州崔氏 宜人 忠州池氏 三位堂壇神位 遷易
時維小春追遠 感時不勝永慕 謹以 清酌庶羞祇薦歲事 尙饗」

축문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동제축문 형식과 동일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貞夫人 尹氏, 淑夫人 崔氏, 宜人 池氏의 三位堂壇神位에게 각각 정이품·정삼품·정육품이라는 벼슬의 작위를 부여한 神位를 모신 유고식 제사 축문이다.

그 외에 제사시간과 내용의 절차는 앞서 설명한 정월 馬堂祭와 동일하였다.

5. 緣起說話

상주 낙상리 마을에서 올리는 마당의 三姓의 여성신을 모시는 洞神祭 緣起설화는 다음과 같다.

12) 상주시 낙상동 李相善(65세) 노인의 이야기(1994. 4).

(Ⅰ) 「상주시 낙상동 동쪽 기슭 산 허리에 허술한 神堂이 있다. 그 堂에는 崔氏·尹氏·池氏 세 분을 모시고 있는데 이 분들은 다 옛날(연대 미상)에 동리에다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며 지금도 그 은혜를 위해 제를 올린다고 한다.

또 근년(10여 년 전)에 우물 위쪽에 명당(신당의 근방)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어느 부자가 몰래 자기 아버지를 묘를 쓰려고 하자 난데없는 뱀이 우물에 우글거리는 소동이 일어 동민들이 모두 일어나 장지를 옮길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암장하려던 상주가 할 수 없이 운구를 반송하였다고 한다.¹³⁾

(Ⅱ) 「옛날 낙원리 부락에 중년의 세 부인이 나타났다. 그들의 행동을 보니 신변의 위협을 느껴 쫓기는 사람들 같았으나 언행과 기품이 예삿 사람들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 한 동안 안전하게 숨겨 주었더니, 얼마후 자신들은 당쟁의 사회를 만난 고관(정승)댁의 부인들이라 하고 그 동안 숨겨준 은혜의 보답으로 지냈던 재물(패물이라고도 하고, 전답문권이라고도 한다)을 모두 동리를 위해 모두내 놓고 이 동리에서 정착하고 살았다. 그 세부인은 곧 貞夫人 坡平尹氏와 淑夫人 慶州崔氏, 宜仁 忠州池氏 부인이었는데, 그들이 내놓은 재물로 인하여 낙원리 부락은 일약 잘 사는 부자마을이 되었고, 그 부인들도 동민들의 협조로 이 부락에서 무사히 수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동리 사람들은 세부인들의 은덕(혜)을 추모하며 마을 뒤편 도룡산 중턱에 사당을 짓고 봄, 가을 일정한 날을 정하여 모든 동민들이 제사를 올렸는데 세월이 갈수록 세 부인은 마을의 수호신처럼 점점 더 받들어 모셔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세 부인의 신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으니 이는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고 후시라도 살아 남았을 자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세 부인들과 동민들의 뜻이었다고 한다.¹⁴⁾

위에서 소개한 두 편 전설의 정황을 두고 볼 때 낙상리의 마당은 正

13) 『상주시』, 상주시·군 간행, 1989. 9 (문학전설편, p.1199)

14) 상주시 무양동 故 黃永穆씨 이야기

月 첫 말날(午日)의 마당제 제사와 十月의 동신제사가 일정 시기동안 복합된 양상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上代에는 낙상리가 상주도(고려시대)와 유곡도(조선조시대)의 한 驛院(驛마을)으로서 馬堂祭를 지내오다가 조선조 중기 이후에는 위에 소개한 고관 정승택 세 부인의 위패를 모시고 洞神祭堂의 기능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結 論

이제 앞에 소개한 낙상리의 마당제에 대한 자료를 분석 종합하여 그 본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예로부터 말은 12支의 일곱 번째 동물로서 활동적이며 도약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신성물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교통용·군사용·농경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洞祭에서 馬神을 모신다든지 말을 神體로 위한다는 것은 神的 존재인 말에게 인간의 내적 욕구를 성취하고자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낙상리 馬堂祭도 驛村으로서 馬(말)에 대한 신성시는 지대하다고 본다. 말에 대한 이용가치로 보아 무엇보다 질병에 보호, 그리고 교통의 이용 수단, 군사용, 나아가 농경에도 필요한 동물이므로 靈物視 하였던 것이므로 神的 존재로 믿었다고 본다.

둘째, 말이라는 동물의 類似原理에 따라 민속상으로 태몽에 말이 나타나면 아들 꿈이라고 한다. 이같이 말이 남성을 상징하며, 한편으로는 으뜸을 상징하기도 한다. 민속상으로 세시에 나오는 午日은 말이 활동력과 관련하여 생기가 넘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말해에 태어난 사람(남자)은 陽氣가 넘친다.¹⁵⁾고 한다. 이같이 말의 氣가 왕성한 날은

곧 午日로서 類似原理에 따라 인간이 말날에 먼길을 나서기에 적합한 날이기도 하다.

낙상리 馬堂祭의 제사날이 정월 첫 午日로 정한 것도 이 날은 말에게 있어서는 일년동안 무병하여 氣가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날이며, 또한 인간에 있어서도 기가 왕성하기를 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간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는 한 해(年)가 되어 馬의 정력이 넘치고, 기가 왕성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기를 소원하였다.

셋째, 馬堂祭의 말의 상징은 神이 타고 다니는 영험적인 존재 곧 神的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上代人들은 天上界의 동경으로 인해 말을 타고 神에 가까이 하려고 하였다. 이같이 말에 대한 神的인 의미가 부여되므로 낙상리의 馬神堂에서도 馬神을 모시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천상계를 동경하였고, 그로 인해 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신과 함께 하려고 했고, 나아가 지상계의 신성한 공간인 신당에 馬神을 모시게 된 것이다.

끝으로 지적해 둘 것은 낙상리의 正月 馬堂祭와 十月의 洞神祭는 동일한 신성공간(馬堂)을 공동으로 사용한 복합신당이다. 낙상리의 마당은 조선조 중기 이전만 해도 영남도의 중간에 위치한 유곡도의 중요한 驛馬(村)으로서 馬神堂의 기능을 다 했으나 馬神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退化되면서 사회의 난을 피하여 들어온 세 명의 사대부 부인들이 모든 재물을 동리를 위해 내어 놓고 수절을 하자, 세 부인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馬堂에서 유교식 제사의 神位를 모시고부터 馬堂의 기능이 洞神祭堂의 기능으로 변하였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초기 馬堂에서는 말의 화상이나, 또 다른 말의 神聖物을 모셨으나 洞神祭의 기능으로 바뀌자면서 神堂에는 세부인의 위패를 모셔지고 원초의 馬神은 神堂 출입문 문

15) 表仁柱, 『민속현상에 나타난 말(馬)의 상징어(2)』,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 제21집 p.64

설주에 말꼬리 털로 神主로 삼으면서 한동안 馬神·洞神이 복합된 제사가 正月과 十月에 각각 올려져 왔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형태 내지 민속일반 또는 제 문화양상이 동일 지역 내에서 구성되고, 또는 기능적 차이를 자세히 조사 관찰하여 비교 분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그 類同性의 파악과 상호관계 및 계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간신앙 분포도 작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본고는 상주를 중심한 낙동강 서북부 문화권의 민간신앙면의 한 맥을 고찰한 것이다.